

의료문서와 지적재산권의 보호

명지대학교 법학과

박 인 회

저작권법상의 보호 1

◎ 저작물의 개념

-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(저작권법 2조 1호)
 - 인간의 사상과 감정
 - 표현
 - 창작물
 - 대법원 1995.11.14. 선고 94도2238 판결: "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,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"
 - 대법원 2005.1.27. 선고 2002도965 판결: "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,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"

저작권법상의 보호 2

◎ 진료사진

- 사진저작물
 - 사진 및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진기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미술저작물과, 정지화면이라는 점에서 영상저작물과 구별
 -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비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조적 개성의 정도가 높음
-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전 모발상태와 수술 후 모발상태를 촬영한 사진
 - 서울중앙지법 2007.6.21.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-저작물성 부정

저작권법상의 보호 3

◎ 진료사진-계속

- 의료기기 홍보 팸플릿 및 홈페이지에 있는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시술을 하는 과정, 치료의 경과, 시술방법, 절제 직후의 환부 모습 및 절제한 표본을 촬영한 사진
 - 대법원 2010.12.23. 선고 2008다44542 판결 -저작물성 부정
- 눈 성형수술 시술 전후의 사진을 좌우로 붙여서 편집한 사진들의 편집저작물성
 -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7.19. 선고 2011가합 3027 판결-편집저작물성 부정

저작권법상의 보호 4

◎ 상담내용

- 환자의 질문에 대해 모발이식수술의 개념, 효용, 수술방법, 수술 후의 처치 등에 관한 원고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밝힌 것
 - 서울중앙지법 2007.6.21.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-저작물성 부정
 - "표현방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지는 않고, 저작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표현한 경우에도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에는 개성이 발휘되어 있지 않다.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"

특허법상의 보호 1

◎ 발명의 개념

-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(특허법 2조 1호)
 - 자연법칙의 이용
 - 기술적 사상의 창작
 - 원래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공지 기술에 비추어 자명한 것 이 아니어야 함
 - The term "invention" means invention or discovery. (미국 특허법 100조(a))
 - 고도한 것

특허법상의 보호 2

◎ 생명공학과 발명

- Diamond v. Chakrabarty, 447 U.S. 303 (1980)
- 하버드 마우스 특허
 - U.S. Patent No. 4,736,866
- Myriad 판결
 - 133 S.Ct. 2107, 2013.6.13.
 - BRCA1, BRCA2 유전자
 - DNA 다른 부분과 공유 결합을 끊어 BRCA 유전자를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분리만으로는, 어떤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,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

특허법상의 보호 3

◎ 직무발명

- 성립요건(발명진흥법 2조 2호)
 - 종업원의 발명
 -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
 - 종업원의 직무범위에 속할 것
- 성립효과
 - 사용자 등의 무상의 통상실시권(10조 1항)
 - 공무원의 경우 국유나 공유,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의 경우 전담조직의 소유(10조 2항)
 - 승계예약 등 유효(10조 3항)

특허법상의 보호 4

◎ 공동연구개발

- 원칙:공유
 - 지분의 처분, 실시권 설정:전원 동의 필요
 - 특허발명의 실시:동의 불필요
- 개량기술의 권리 귀속
 - 특허권자의 최초 기여분 보상 및 기술혁신 저해하지 않도록
-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
 -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24조
 - 원칙:유형적 결과물, 지식재산권 등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

상표법상의 보호 1

◎ 서비스표

-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(상표법 2조 2항)
- 등록의 요건(6조)-식별력
 -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(7호)
-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(7조)
 - 저명한 타인의 성명·명칭 또는 상호·초상·서명·인장·아호·예명·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(6호)
 -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(10호)
 -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(11호)

상표법상의 보호 2

◎ 사례

- 샤넬의원, 샤넬성형외과
 - 대법원 2007.12.27. 선고 2006후664 판결
 -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저명상표를 쉽게 연상하게 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(7조 10호)
- e-편한병원
 - 대법원 2006.6.16 선고 2005후636
 - 전체적으로 '인터넷을 이용하여 편하게 해주는 화상 진료서비스업 내지 건강상담업'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직감시킴-기술적 서비스표에 해당

상표법상의 보호 3

◎ 사례-계속

- 서울척병원, 천안 우리척병원
 -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344
 - 척추질환에 대해 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자타 서비스의 식별력을 상실한 서비스표
- 우리한의의원, 우리한방병원
 - 특허법원 2004.2.6. 선고 2003허5910판결
 - “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나,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므로, 양 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”

Q & A